

# 조학균 신부의 미사 이야기

\* 주 : 평화신문에 연재된 조학균 신부님의 "미사 이야기"입니다.



조학균 베드로 신부  
예수회, 전례학 박사

## 27 마침 예식 - 용기, 성령 받고 복음화 수행에 파견

사제가 성작과 성반을 깨끗이 닦는 동안에, 영성체를 마친 회중은 잠시 침묵 중에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일치의 시간은 감사의 시간이며,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다.

사제 역시 성작과 성반을 닦은 후 조용히 침묵 속에 기도한다. 기도의 주된 내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와 같이 살며,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또 회중은 그리스도의 삶을 닮기 위해,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기 위해 창조된 자신의 신원에 대해 확고한 의식을 갖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사명에 참여하며 영원한 그리스도 왕국의 도래를 위해 또 복음 전파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를 통해 영육에 힘을 얻은 회중은 미사 마지막 부분인 마침 예식에 참여한 후 다시 일상 생활로 돌아가게 된다.

마침 예식은 '강복' 그리고 '파견식'으로 이뤄져 있다. 분당 소식이나 간단한 공지사항은 마침 예식 전에 하며, 내용이 길거나 미사의 은총을 감소시키는 내용을 공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마침 예식에는 강복이 있다. 강복의 삼위일체적 구조는 회중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에게서 오는 거룩한 은총에 힘입어 새로운 힘을 받아 자신의 의무를 다하도록 해준다. 강복을 받음으로써 신앙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사건은 제자들의 삶을 새롭게 바꿨을 뿐 아니라 제자들을 굳센 신앙으로 변하게 해 신앙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용기를 주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선물로 제자들에게 평화와 함께 성령을 주시는데(요한 20,21-22), 마침 예식의 강복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신 사건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강복을 할 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모든 강복의 원천적 행위이다.

또 강복은 영원한 삶을 간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며, 세상과 온 인류를 위한 하느님 사랑과 애정의 표징이기도 하다. 그리고 강복을 통한 성령의 은총은 제자들을 새롭게 파견하며 복음전파에 대한 강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화 사명은 이제 성령의 은총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제자들을 복음화 사명으로 초대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 복

음화 사명은 사제의 강복을 통해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다.

마침 예식은 단순히 미사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 사명의 수행을 위한 파견의 의미로서 새로운 시작으로 해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증거해야 한다.

## 28 끝, 퇴장 - 여유 있게 하느님의 집 나오도록

마침 예식이 끝나면, 사제와 부제는 입당할 때와 같이 제대에 입을 맞추고(한국 주교회의에서는 깊은 절을 하는 것으로 정함) 제단에서 내려온 후 봉사자들과 함께 제대에 다시 깊은 절을 함으로써 퇴장 행렬에 들어간다. 많은 공동 집전자와 함께 미사 전례를 마칠 때는 제단이 좁거나 함께 절 하기가 어려울 경우, 제단에 있었던 주례 사제를 중심으로 절을 한 후 퇴장한다. 실제로 공동 집전자가 많은 대 미사의 경우에는 본당 사정에 따라 전례 주관자가 퇴장 예식을 진행, 안내하는 것이 좋다. 퇴장 행렬은 봉사자부터 순서대로 하며 주례 사제는 마지막에 퇴장한다.

미사가 끝난 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중이 주님의 기도, 성모송이나 영광송과 같은 공동기도를 바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 회중이 함께 기도를 바칠 수 있지만 함께 하는 기도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퇴장 성가를 불러 사제가 퇴장하는 것을 도와준다.

일부 본당에서는 사회자가 마침 기도로 영광송과 같은 기도문을 낭독하고 회중이 함께 '아멘'이라는 고백을 하는데, 사제가 앞서 미사가 종결됐다고 선포했고 퇴장했기에 미사 전례가 사회자에 의해 종결된 것 같은 의미로 전달돼서는 안 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제가 퇴장함으로써 미사는 종결되는 것이다.

또 사제가 퇴장할 때 퇴장 성가를 부르는데 성가

가 너무 길거나 너무 짧아서는 안 된다. 사제가 퇴장하는 시간에 맞게 성가를 선택하는데, 사제가 제의 방에서 제의를 벗을 때까지 성가를 부르거나, 성가 후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오르간을 연주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퇴장 성가는 미사 전례를 통해 하느님에게서 받은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복음의 주제와 관련되거나, 전례력에 맞는 노래를 선택해서 부른다. 가능하다면 마침 예식 후 퇴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조금 빠른 곡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미사가 끝나고 퇴장하는 가운데 회중이 사제를 따라 곧바로 나오는 모습은 좋지 않다. 미사가 끝난 후 남아서 조용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 여유 있게 차분히 하느님의 집을 나오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성당은 개신교와 달리(가톨릭은 성당을 하느님의 집으로 생각해 설계하고, 개신교는 교회를 기도를 목적으로 하여 설계한다) 하느님이 계신 곳이므로 퇴장을 할 때에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집에서 나오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미사 전례가 끝난 후 다른 전례라든가 예식이 이어지면 마침 예식, 즉 인사와 강복 그리고 파견은 생략한다. 예를 들면 성 목요일의 주님 만찬 미사 후 성체를 수난 감실로 이동하는 예식이나, 장례미사(고별식)와 같은 것이 해당된다. 다른 전례나 다른 예식을 진행함에 앞서 사회자는 회중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다음 전례나 예식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당을 나설 때에 성수를 찍어 성호경을 바칠 수 있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깊은 절로 대신할 수 있다.

- '미사 이야기'는 이번 호로 마칩니다.

조학균 신부님과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